

#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중학생의 자아관이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Fathers' Parenting Behavior, Communication with Fathers,  
and the Self-Concept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Life Satisfaction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채진영\*\*

Dep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  
Assistant Professor : Chae, Jin-Young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middle school students'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tested a hypothetical structural equation model relating the variables to middle school students'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e subjects were 2,829 (1,411 boys and 1,418 girls) pupil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Survey on the Familial Consciousness of Youth and Parents (KSYC-Familial Consciousness) in 2010.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percentages, Pearson's correlations using SPSS 18.0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7.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proposed model, as revised,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illustrated that all three variables (fathers' parenting behavior, communication with fathers, self-concept) indicated a direct or indirect influence on middle school students' level of life satisfaction. Fathers' parenting behavior had the greatest total effect on middle school students' life satisfaction. Fathers' parenting behavior, communication with fathers and self-concept explained 59% of the total varia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life satisfaction. The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are also discussed.

---

▲주요어(Key Words) : 아버지의 양육행동(fathers' parenting behavior), 의사소통(communication), 자아관(self-concept),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 I. 서론

최근 '행복'이 사회 전반에 키워드가 되어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200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중국, 일본, 한국

의 청소년 2,000여 명씩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중국(85.3%)과 일본(74.4%) 청소년들에 비해 한국 청소년이 삶에 대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57.6%)(보건복지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연세대학교·한국방정환재단, 2010)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최하위권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4년 연속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12, 5, 5). 이러한 우려스러운 결과는 한국 청소년의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자신의 미래를 부정

---

\* 이 논문은 2012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2012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 주저자·교신저자 : 채진영 (E-mail : jychoe@jbnu.ac.kr)

적으로 인식하고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경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인 주관적 만족감을 인지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삶의 만족도라고 하는데(Diener & Diener, 1995), 이것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개인의 내적 및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화 가능하다(Fujita & Diener, 2005). 따라서 자신이 지각하는 삶의 여건 및 상태와 스스로 설정한 기준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달라지게 된다(Pavot & Diener, 1993). 최근에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소와 그 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삶의 만족도를 높여서 질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Eid & Lasen, 2008).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 심리적 문제를 덜 일으키고 긍정적인 성과를 이룬다는 것이 입증되었다(Diener & Diener, 1995; Shin, Jeon, & Yoo, 2010; Ye, Yu, & Li, 2012). 따라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기의 현재 삶에 대한 만족 정도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탈행위 및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기초가 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변인으로 아버지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청소년기에는 또래와의 관계가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부모는 여전히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안식처이며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삶에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Markiewicz et al., 2006).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청소년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Kim, Cho, & Kim, 2010; Chae, 2012), 청소년의 삶에 부모는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청소년의 삶에 어머니 못지않게 아버지의 영향이 중요하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아직 형성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Nam & Kim, 2011). 여성의 사회진출과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아버지의 질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아버지와 관련된 변인이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청소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부모가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보이고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수록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인식한다는 일치된 선행연구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Huebner, 2004; Park, 2004; Piko & Hamvai, 2010; Shin, Jeon, & Yoo, 2010). 즉 부모가 민주적이고 허용적인 양육유형을 보일 경우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You & Yi(2010)

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의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남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청소년의 성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ohn et al, 2012).

한편 청소년은 부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인식(Moon, 2008; Kim, Cho, & Kim, 2010)하고 있는 반면, 아버지와 의사표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폐쇄적이며 역기능적인 문제적 의사소통을 할 때 자녀는 높은 우울수준을 보였고(Lim, 2000),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게 인식하였다(Kim, 2002). 이는 단순히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와 양적인 상호작용 뿐 아니라 질적인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더불어 개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청소년 자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통계청·여성가족부, 2011)에 의하면 42% 정도의 청소년이 아버지와 하루 30분의 대화도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7% 정도는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1,200 여명의 11~15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Children's Society, 2010)를 통해, 아버지와 '거의 매일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는 청소년이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청소년보다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감이 아버지와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Barns & Olson(1985)은 부모와 자녀가 형성하는 관계는 이들의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지만 자녀의 성에 따라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의사소통을 지각하는 데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예측할 수 있는데, 삶의 만족도를 비교문화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Diener & Diener, 1995)에 의하면 개인주의가 강한 서양문화권에 비해 집단주의가 강한 동양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1980년대 중반에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여 약 20여년이 지난 현재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에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Ye, Yu, & Li, 2012)에서는 남녀학생 모두에게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라고 보고하여 동양문화권에서도 그 영향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성을 구별하지 않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Civitci & Civitci, 2009)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남녀 청소년 모두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Shin et al, 2010).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문화권에 상관없이, 연령에 상

관없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또다른 개인 변인인 자아정체성에 대해서는 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Huffstetler, 2006)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이 높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아정체성 확립이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인 시기(Erikson, 1968)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자아정체성 역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은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아버지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수행을 하며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지각하는 경우 청소년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Ji, 2008; Nam & Kim, 2011). 아버지가 제공하는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oon, 2008; Lee, 2009; Finzi-Dottan, Bilu, & Golubchik, 2011). 즉 아버지가 양육자로서 기능적인 가족의 형태를 이끌고 청소년 자녀와 질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청소년은 그 관계를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Beyers & Goossens, 2008). 이렇듯 청소년은 자신에게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아버지와 원활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청소년은 자신에 대해 존중할 줄 알며 현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등 긍정적인 자아관을 형성한다.

부모-자녀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인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Jang & Lee, 2007)으로, 부모가 보이는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Kwon & Lee, 2006). 즉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부모는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와 의사소통 등을 통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녀의 내적작동모델이 타인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중학생 자녀와의 의사소통, 중학생의 자아관 및 삶의 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받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중학생의 자아관 및 삶의 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와 의사소통에 영향을 받은 중학생의 자아관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의사소통방식이라는 외적변인과 중학생의 자아관으로 나타나는 내적변인에 의해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합리적 또는 권위적인 양육행동을 합하여 '아버지의 양육행동'이라는, 개방적 또는 문제형 의사소통방식을 합하여 '아버지와 의사소통'이라는, 중학생의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을 합하여 '자아관'이라는, 기대부합과 현재생활을 합하여 '삶의 만족도'라는 잠재변수를 생성하였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아버지와 관련된 변인을 고려하여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므로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그동안 간과되었던 아버지의 영향이 청소년의 삶에 만족도에 미치는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아버지 영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선행연구(Ko, 2008; Cho, Kim, & Kim, 2011)에 의하면 성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차이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성을 나누지 않고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청소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건강한 마음가짐을 도모하는 변인을 찾음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적 향상에 관심을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고, 연구 가설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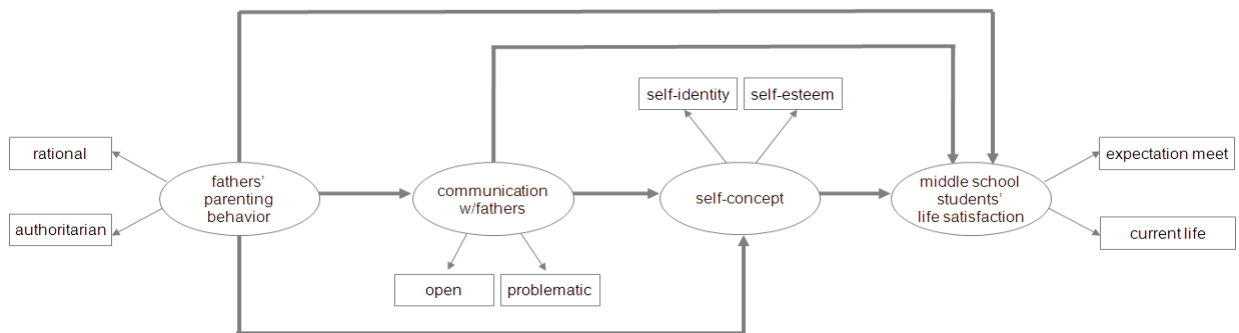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Hypothetical Model

형을 구축하였다(<Figure 1> 참조).

<연구문제 1> 중학생은 아버지의 양육행동,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자아관 및 삶의 만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자아관과 어떠한 관계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이 교육통계연보(교육과학기술부, 2009)에 기초하여 전국의 중학생을 모집단으로 규모비례확률표집법을 적용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2개 지역의 중학교 1~3학년 2,9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 세대간 가족의식 비교조사(KSYC-Familial Consciousness)의 자료 가운데 결측응답이 있는 자료를 제외한 총 2,82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남학생 1,411명(49.9%), 여학생 1,418명(50.1%)이며, 1학년은 898명(31.7%), 2학년은 982명(34.7%), 3학년은 949명(33.5%)이었다. 아버지와 동거하는 학생은 2,589명(91.5%), 비동거인 상태는 240명(8.5%)이며, 아버지의 학력은 초졸 32명(1.1%), 중졸 102명(3.6%), 고졸 1,063명(37.6%), 전문대졸 312명(11.1%), 4년제 대졸 935명(33.1%), 대학원 졸업 이상이 337명(11.9%)이었다. 80.1%의 아버지가 40대였다.

### 2. 측정도구

#### 1) 삶의 만족도

2010 세대간 가족의식 비교조사의 청소년 대상 설문지 중 현재 자신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기대부합'이라는 하위요인에는 '지금 나의 생활은 내가 바라던 대로이다' 등 2문항이, '현재생활'이라는 하위요인에는 '나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등 3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학생은 현재 삶이 자신의 기대에 적합하다고 느끼며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hronbach의  $\alpha$  계수는 순서대로 .80, .84이다.

#### 2) 아버지의 양육행동

2010 세대간 가족의식 비교조사의 청소년 대상 설문지 중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합리적 양육행동'이라는 하위요인에는 '가족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할 때 그 이유를 내게 설명해 주신다' 등 5문항이, '권위적 양육행동'이라는 하위요인에는 '내가 당신의 기대대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 등 5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권위적 양육행동과 관련된 문항은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모두 역코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는 합리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며 권위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임을 의미한다. Chronbach의  $\alpha$  계수는 순서대로 .83, .78이다.

#### 3)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2010 세대간 가족의식 비교조사의 청소년 대상 설문지 중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9문항을 사용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이라는 하위요인에는 '나의 소신을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다' 등 5문항이, '문제형 의사소통'이라는 하위요인에는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끔 받기가 어렵다' 등 4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형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항은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모두 역코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개방적이며 문제극을 것을 의미한다. Chronbach의  $\alpha$  계수는 순서대로 .84, .77이다.

#### 4) 자아관

2010 세대간 가족의식 비교조사의 청소년 대상 설문지 중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17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정체성'이라는 하위요인에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등 8문항이, '자아존중감'이라는 하위요인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등 9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학생은 자아정체성이 긍정적이며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hronbach의  $\alpha$  계수는 순서대로 .87, .87이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8.0과 AMOS 7.0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각 변인

들이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방정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 III. 연구결과

#### 1. 아버지의 양육행동,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자아관 및 삶의 만족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중학생의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자아관과 삶의 만족 정도는 <Table 1>과 같이 모두 중간수준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이 가운데 자아관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M = 3.49, SD = 5.33$ ), 이를 하위요인으로 살펴보면 자아정체성( $M = 3.51, SD = 5.49$ )이 자아존중감( $M = 3.46, SD = 5.82$ ) 보다 조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아버지의 양육행동도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지각( $M = 3.23, SD = 6.25$ )하였으며 합리적인 양육행동이 모든 하위요인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 $M = 3.58, SD = 4.17$ )를 보였고, 역코딩을

한 권위적인 행동의 점수는 가장 낮아( $M = 2.88, SD = 4.30$ ) 중학생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합리적인 것에 비해 조금은 권위적이라고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중학생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평균 이상( $M = 3.17, SD = 6.37$ )으로 인식하여 비교적 개방적( $M = 3.26, SD = 4.54$ )이고 덜 문제적( $M = 3.05, SD = 3.28$ )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는 평균 이상( $M = 3.15, SD = 4.68$ )이었고, 자신의 기대부합( $M = 3.05, SD = 1.94$ ) 보다는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 $M = 3.22, SD = 2.93$ )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중학생 자아관의 영향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Table 2>와 같이 아버지의 권위적인 행동과 자아정체성 및 자아존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All Variables in the Models

(N=2,829)

variables		M	SD	M	SD
fathers' parenting behavior	rational	3.58	4.17	3.23	.62
	authoritarian <sup>†</sup>	2.88	4.30		
communication with fathers	open	3.26	4.54	3.17	.70
	problematic <sup>†</sup>	3.05	3.28		
self-concept	self-identity	3.51	5.49	3.49	.61
	self-esteem	3.46	5.82		
life satisfaction	expectation meet	3.05	1.94	3.15	.93
	satisfaction with current life	3.22	2.93		

<sup>†</sup> reverse coding

Table 2. Inter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in the Model

	1	2	3	4	5	6	7	8
1. fathers' rational parenting behavior	1.00							
2. fathers' authoritarian parenting behavior	.09 **	1.00						
3. open communication with fathers	.70 **	.07 **	1.00					
4.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fathers	.29 **	.37 **	.31 **	1.00				
5. self-identity	.32 **	.02	.35 **	.12 **	1.00			
6. self-esteem	.35 **	.02	.35 **	.09 **	.67 **	1.00		
7. expectation meet	.44 **	.09 **	.50 **	.24 **	.40 **	.38 **	1.00	
8. satisfaction with current life	.46 **	.09 **	.51 **	.28 **	.37 **	.36 **	.84 **	1.00

\*\* $p < .01$

중감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각 변인들 간에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상관계수의 분포는 .07~.84이었다. 기대 부합이나 현재생활 만족 등으로 나타나는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아버지의 권위적 양육행동( $r_{\text{권위적 양육행동-기대부합}} = .09, p < .01, r_{\text{권위적 양육행동-현재생활}} = .09, p < .01$ ) 또는 아버지와의 문제적 의사소통( $r_{\text{문제적 의사소통-기대부합}} = .24, p < .01, r_{\text{문제적 의사소통-현재생활}} = .28, p < .01$ ) 등 부정적인 요인과의 상관계수보다 합리적 양육행동( $r_{\text{합리적 양육행동-기대부합}} = .44, p < .01, r_{\text{합리적 양육행동-현재생활}} = .46, p < .01$ ) 또는 개방형 의사소통( $r_{\text{개방형 의사소통-기대부합}} = .50, p < .01, r_{\text{개방형 의사소통-현재생활}} = .51, p < .01$ ) 등 긍정적인 요인과의 상관계수가 더 높았다. 즉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의사소통은 중학생의 삶에 대한 높은 만족과 관련이 더 있음을 의미한다.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축한 연구 가설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chi^2 = 1089.37, df = 27, GFI = .93, TLI = .90, CFI = .90, RMSEA = .11$ 이었으며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중학생의 자아관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모형이 보다 적합한 모형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외하고 <Figure 2>와 같이 수정하였다.

우선 연구 수정모형이 적합하기를 검증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구한 결과,  $\chi^2 = 1089.912, df = 28, GFI = .93, TLI = .91, CFI = .91, RMSEA = .06$ 이었다. 연구 가설모형에 비해 연구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향상되어 적합한 수준이었다. 연구 수정모형의 계수 추정치는 <Table 3>과 같으며,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중학생과 아버지간의 의사소통도 긍정적( $\beta = .71, p < .001$ )이었으며,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았다( $\beta = .27, p < .05$ ).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중학생의 자아관은 긍정적( $\beta = .35, p < .001$ )이었으며,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았다( $\beta = .26, p < .05$ ). 또한 긍정적인 자아관을 가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았다( $\beta = .16, p < .001$ ). 이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행동,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자아관이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분산의 5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3개의 변인이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반 이상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의한 경로계수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효과분해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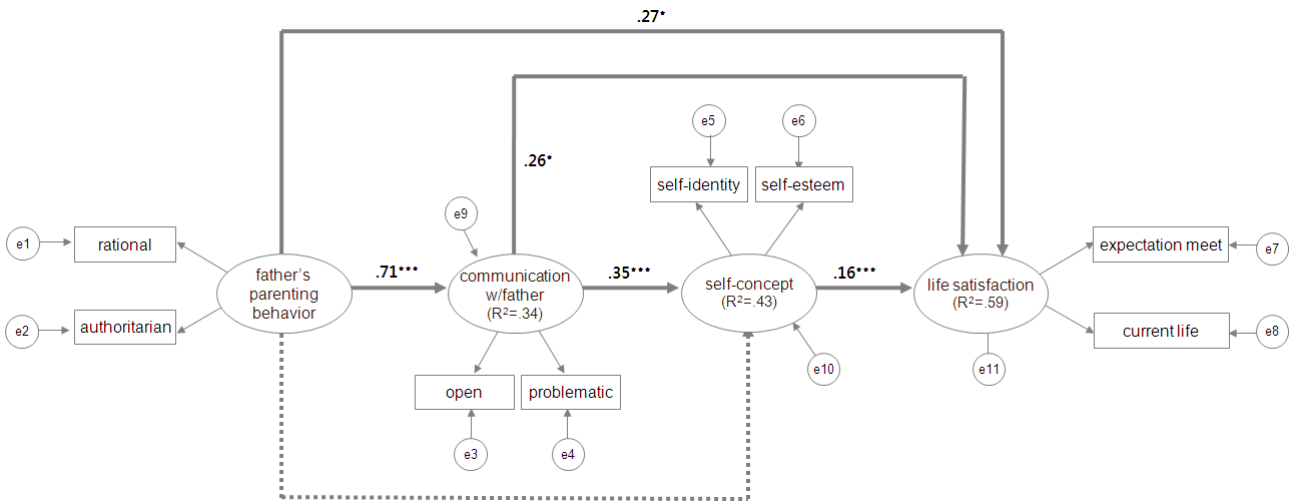


Figure 2. Modified Model

Table 3. Path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in the Modified Model

path coefficients		B	$\beta$	S.E.	C.R.
fathers' parenting behavior	→ communication with fathers	8.18	.71	1.71	4.79***
fathers' parenting behavior	→ life satisfaction	.87	.27	.42	2.08*
communication with fathers	→ self-concept	.44	.35	.03	16.28***
communication with fathers	→ life satisfaction	.12	.26	.06	1.84*
self-concept	→ life satisfaction	.06	.16	.01	5.84***

\* $p < .05, ***p < .001$

Table 4. Effects Decomposition of Each Variables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variables		bootstrapping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communication with father	father's parenting behavior	.71		.71
	self-concept		.41	.41
life satisfaction	communication with father	.35		.35
	self-concept		.27	.27
life satisfaction	father's parenting behavior	.27	.36	.63
	communication with father	.26	.06	.32
	self-concept	.16		.16

하였고,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한 결과, 모든 간접효과는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분해의 결과는 <Table 4>와 같고, 제시된 모든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이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직접효과( $\beta = .27, p < .05$ )와 의사소통( $\beta = .71, p < .001$ )과 자아관을 거쳐( $\beta = .41, p < .01$ ) 정적인 간접효과( $\beta = .36, p < .01$ )를 보여 .63의 총효과를 보였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정적인 직접효과( $\beta = .26, p < .05$ )와 자아관을 거쳐( $\beta = .35, p < .001$ ) 정적인 간접효과( $\beta = .06, p < .01$ )를 통하여 .32의 총효과를 보였으며, 청소년의 자아관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직접효과( $\beta = .16, p < .001$ )를 보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크기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중학생의 자아관과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2개 지역의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자아관, 삶의 만족도는 각각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백분율로 환산해 보면 63%가 되어 2008년에 조사한 결과(보건복지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에 비해서는 조금 오른 수치이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네덜란드(94.2%)에 비하면 30% 이상 낮은 것이며, 전체 평균인 84.8%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결과이다(연세대학교·한국방정환재단, 2010).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청소년기에 있는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며 이는 곧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인 동시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자주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와 급증하는 우울증세 및 자살률 역시 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들에게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동시에 분석하고자 구축한 연구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자신의 자아관은 삶의 만족도에 모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관련변인들 가운데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중학생의 자아관을 거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여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총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보이는 민주적이고 허용적인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Piko & Hamvai, 2010; Shin, Jeon, & Yoo, 2010)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보이는 양육행동을 통한 상호작용의 관계가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버지가 합리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경우 개방적인 의사소통 등을 통해 중학생 자녀와 맺는 긍정적인 관계는 중학생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이라는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게 되는 것이다.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심층면접을 한 연구(한경혜, 1997)에 의하면, 아버지는 과거 자신의 아버지와의 엄격하고 감정교류가 적었던

부자(父子)관계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자녀와는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자녀 양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보다 많은 대화를 나누며 감정을 잘 표현하는 친구 같은 아버지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들의 이와 같은 희망과는 달리 실제로는 자녀 양육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해야 하고 또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과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막연한 정보가 아닌 명확하고 또 실현 가능한 정보와 기술이 전달되어 이상적인 아버지의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이 매우 부족하다는 최근 조사 결과(통계청·여성가족부, 2011)를 바탕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모여지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 자녀와 관련된 부모교육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참여자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통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또 올바른 양육행동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중학생 자녀와의 효율적이고 개방적인 대화법에 대한 아버지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꾸준히 보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 확산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또는 참여율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관한 이해 및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수행법, 자녀와의 대화법 등의 교육을 진행하여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 아버지에게 자녀 양육에 관한 실질적이고 효과성 높은 도움을 주어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질의 아버지 역할이 수행된다면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가 향상될 것이고, 이는 곧 청소년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관을 형성하는 기초가 될 것이며 청소년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까지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시점에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청소년의 삶의 만족 정도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과 긍정적인 자아관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둔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 역할을 강조할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기하였다는 것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아버지의 영향 뿐 아니라 어머니의 영향도 동시에 살펴보고 자아관 이외에도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우울 또는 불안 정도 등 심리적인 요인도 함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생태학적 관점에 입각해서 중학생의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업스트레스나 학교 적응과 같은 학교 관련 변인, 또래와의 동질성 교우관계 변인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입체적인 관계를 분석한다면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패널데이터 자료를 사용한 관계로 5개의 문항으로만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을 통해 살펴본다면 중학생이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 정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

-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육통계연보.  
<http://cesi.kedi.re.kr/index.jsp>  
 보건복지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연세대학교·한국방정환재단(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구축과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조선일보(2012, 5, 5).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4년 연속 OECD 국가 중 꼴찌  
 통계청·여성가족부(2010). 201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통계청·여성가족부(2011).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한경혜(1997). 아버지상의 변화. *남성과 한국사회*.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Barnes, H. L. & Olson, D. H.(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Beyers, W. & Goossens, L.(2008). Dynamics of perceived parenting and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31, 165-184.  
 Chae, J.(2012). 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aggression: Examining a moderating effect of attachment to parent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9(1), 71-87.  
 Children's Society.(2010). 2010 British Household Panel.  
 Cho, S., Kim, H., & Kim, M.(2011).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nd ecological contex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49(3), 87-98.  
 Choi, I.(2007).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self-differentiation, depression and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3), 611-628.



- Civitci, N. & Civitci, A.(2009). Self-esteem as mediator and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 954-958.
- Diener, E. & Diener, D.(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8(4)*, 653-663.
- Eid, M. & Larsen, R. J.(2008).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N.Y.: Guilford press.
- Eric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Fijita, F. & Diener, E.(2005). Life satisfaction set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 Finzi-Dottan, R., Bilu, R., & Golubchik, P.(2011). Aggression and conduct disorder in former Soviet Union Immigrant adolescents: The role of parenting style and ego identit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 918-926.
- Francis-Sharnowski, M. A.(2009). *Relationships among parent attachment, ego identity, life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closeness for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Wayne State University.
- Han, Y.(1996). Study on youth life satisfaction by environment - Cases of middle school student in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Huebner, E. S.(2004). Research o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cial Indicator Research, 66*, 3-33.
- Huffstetler, B. C.(2006). Sense of identity and life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nnessee.
- Jang, Y. & Lee, Y.(2007).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s and communication with parents on peer victimiza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2(2)*, 149-166.
- Ji, H.(2008). A study of relationship on father-children communication perceived by children, and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lf-esteem. *Bus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1*, 75-96.
- Kim, H., Cho, S., & Kim, M.(2010). Effects of significance of study, pressure for study and success on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dolescents commun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5)*, 49-60.
- Kim, Y.(2002). The relation of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self-esteem perceived by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 Ko, Y.(2008). The relationship among father, mother, peer attach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in middle school student.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6(2)*, 111-131.
- Kwon, J., & Lee, E.(2006). The effects of impulsivity,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control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Studies on Korean Youth, 17(1)*, 325-351.
- Lee, J.(2009).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ego-identity,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5)*, 1021-1033.
- Lim, J.(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child communication type and child's depression disposi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 Nam National University.
- Markiewics, D., Lawford, H., Doyle, A. B., & Haggart, N. (2006).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use of mothers, fathers, best friends, and romantic partners to fulfill attachment nee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 127-140.
- Moon, Y.(2008).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self-concept and problem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4(4)*, 405-414.
- Nam, C., & Kim, S.(2011). The effects of fathering practice 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2)*, 315-334.
- Park, N.(2004). The role of subjective well-being in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1(1)*, 25-39.
- Pavot, W., & Diener, E.(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2)*, 164-172.
- Piko, B. F., & Hamvai, C.(2010). Parent, school and peer-related correlates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 1479-1482.
- Shin, M., Jeon, S., & Yoo, M.(201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wellbeing in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9), 131-150.

Sohn, B., Kim, S., Park, J., & Kim, Y.(2012). The effect of desirable parenting attitudes upon life satisfaction in early adolescence: The mediating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and ego-resilience and multiple group analysis across gender. *Studies on Korean Youth*, 23(1), 149-173.

Ye, S., Yu, L., & Li, K.(2012). A cross-lagged model of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Gender differences among Chinese university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 546-551.

You, Y. & Yi, E.(2010).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2(4), 91-115.

- 접수일 : 2012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12년 12월 31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1월 16일